

# 재해 지역 소식

2013년 10월

해변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



오랜만에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 어른들도 동심으로.



산호초의 바다는 어디까지나 투명

국내 모금 달성액  
(2013년 11월 25일 현재)

588,232,750 엔

일본기독교단 동일본대지진구조모금

목표액 10억엔(국내만)

기간 2011년 7월 1일~2015년 3월 31일

송금처 유우초은행

구좌번호 0010-6-639331

가입자명 일본기독교단동일본대지진구조모금

\*구조 대책 본부에서는 재해 지역 지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 Tel&Fax03-3205-6088

## 오키나와의 자연을 만끽한 재해 지역의 아이들 오키나와·도카시킴

8월 7일~11일의 5일간, 오키나와 그리스도 수학원의 초대로 재해지의 어린이 16명이 오키나와 본섬과 도카시마에서 지냈습니다. 인솔은 일본 기독교단의 목사와 재해자 지원 센터의 전 스태프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학원 학생과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목사등 9명이 더해져 총 28명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문화·대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첫날은 친절한 현지 스태프 덕분에 긴장을 풀고 아름다운 슈리성을 견학. 둘째날부터 네째날까지는 푸르른 섬·도카시킴에서 지냈습니다. 재해 이후 바다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동북의 아이들은 새하얀 해변과 에메랄드 그린의 바다에서 감격의 소리를 높이며 바다에 잠수하여 다채로운 물고기와 어울리며 바다 거북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정말 꿈만같은 나날을 지냈습니다. 스태프 일동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떨어진 곳의 대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마음껏 지내게 하고 싶다는 것이 이 기획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스태프는 다시금 오키나와의 역사를 현지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카시킴은 1945년 3월에 미군이 점령, 이때부터 오키나와 본섬을 포격하는 것으로 3개월에 걸쳐 오키나와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때 섬의 많은 사람을 자결로 몰아 넣었습니다. 오키나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해지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해 주신 배경에는 전쟁을 통해 경험한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 나토리교회 목사·아라이 이사크)